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 후 제1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주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차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진실하게 살피게 해 주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바르고 참된 것을 꼭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시86:4,5 인도자
- ▲ 교 독 문 120. 성탄절(2)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이재훈 목사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301.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께
- ▲ 성경봉독 수 24:14-18 1부: 인도자/2부: 송정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함 께

찬 양 I. 빛오소서 마중물찬양대
 II.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청파찬양대

말 씬 누구를 섬길 것인가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435.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광야에서 늘 지켜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主)로 섬길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때때로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욕망을 따르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백성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쉽

쉽

용서

용서란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 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하는 것을 - 언제까지나 용서하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하는 데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 마음 - 우리 존재의 중심 - 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만족과 완전한 연합을 갈망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에 갈망을 다 채울 수 없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자매든 자녀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원하는 것은 많은데 받는 것은 일부뿐이니 우리는 늘 상대를 용서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충분히 축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축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을 세워 주고 인정하고 확증해 주고 기뻐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해 줄 수 있다.

치유는 고통이 없어진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더 큰 고통의 일부로 보고 나누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치유의 첫 작업은 우리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고립 상태에서 끄집어내 악한 마귀와의 큰 싸움의 한복판에 두는 것이다. 애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 일대일 관계를 통해서든 소그룹 지원을 통해서든 공동체 축제를 통해서든 - 우리는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

상처 입은 자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왜 나는 나를 건드리거나 상처 입힌 자들을 늘 생각하는 것일까? 왜 나는 그들에게 내 감정

과 기분을 지배할 힘을 내주는 것일까? 왜 나는 단순히 그들이 베푼 선을 감사하며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분노와 원함과 상처를 품어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더라도 하다는 듯 말이다. 내게 상처 준 그들에 의해 내 정체성이 결정되더라도 하다는 듯 말이다.

...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용서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어렵다. 용서받는다든 것은 의존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 내게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싶다’라고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되받을 수 있다. “내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난 용서 같은 것 필요 없습니다. 저리 비키십시오.” 내가 남들의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하는 자이며 따라서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마음은 거기에 강하게 저항한다. 우리 문화는 이 부분에서 끔찍하리만큼 망가졌다. 용서하기도, 용서를 구하기도 어려워한다. 용서를 주고받아야 할 것은 비단 개인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그 소중한 자리에 들어서야 한다. 그럴 때 공동체가 창출된다.

...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처럼 속이 좁은 분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걸으며 주저 없이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순간 진정한 관계의 회복인 회심이 일어난다. 인간은 어찌다 한 번씩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찌다 한 번씩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회심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며, 그 안식 덕분에 우리는 다시 숨 쉬며 하나님의 용서의 품안에서 살 수 있다.

- 헨리 나우웬, 「기도의 삶」 (복있는사람) 중에서

송년에 즈음하면

유안진

송년에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일 년이 한 생애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감기고 귀 닫히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 길 막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담겨집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 버립니다

일 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승일 권 순 김근중 정옥영 김기석 김희우 김남종 오복순 김성아 김승현 김수진a
김애순 김연정 김영희 김정규 이종옥 김정린 김중수 이순정 김지은 김지현 김진우
임미진 김진혁 신다현 김창숙 김은종 김현주 김혜영 노신후 박미연 박상욱 임서영
박석희 조항미 박재영 이현정 박재우 정충원 박영진 박준희 이기분 방 민 방 준
사혜리 사은기 이미경 서지은 서혜원 성지현 신동완 심재남 김성희 심창현 심해성
안미숙 오은영 유성애 이나라 이완구 이용석 이재삼 전정현 이정우 장윤지 이지형
최희선 이호원 임선자 임성택 홍순위 임 영 정경례 장기환 장병준 박소현 장원호
박성희 정성훈 정연경 정영우 김지윤 정은석 최정신 정택중 정현숙 최소라 고인성
최형균 강경화 한성건 정지혜 한양미 이진영b 홍소형 무명1

감사헌금

계명순 구혜린 김경미 김영호 김옥곤 김은영 김은지 김일재 김정완 서담이 김지현
김태정 김향자 나영란 박창운 허정윤 방종미 변중복 김은녕 신기호 오민용 오이새
최은별 윤경석 윤선호 이상도 이지형 최희선 이태석 임중수 임혜진 정확성 김현숙
채일석 최가운 함정희 무명4 이동규 정정란(대전새중앙교회)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유수진 은종인

녹색꿈헌금

김주희 이영하 한양미 무명1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송년주일 :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집회는 쉽니다. 사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 송구영신 : 송구영신예배가 31일(화)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수요일집회 :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신정휴일 관계로 쉽니다.
5. 찬양대원 모집 : 1부 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합니다.
6. 신앙실천 :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며 새해 첫 주간입니다.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주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요 1:9~18	1부 김기석 2부 김기석	공동기도 김기석	인도자 강세기	이재훈 이범석
1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임주빈	이국노 박미영	최현옥 김신실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기영			
식당봉사	오늘	진정숙 최윤화 정연경 류형민 이미영 박기원	홍윤선 이용석		
	다음주	박영신 이미휘 고혜경 채옥춘 최미자 최광희	김종락 설규범		
설거지봉사	청과7속 (오늘) 2남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4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